



[경제]

GM·포드에 대규모 납품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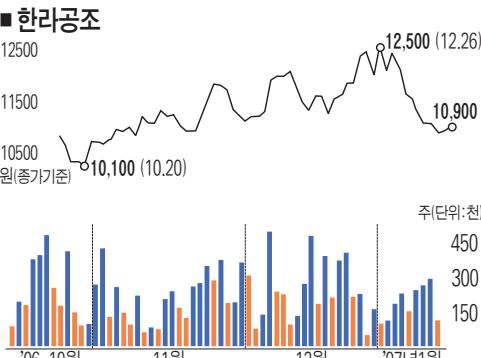
■ 한라공조

국내 1위의 자동차용 공조기 생산업체. 주력 제품은 차량용 에어컨과 냉매를 압축하는 컴프레서로 매출구성은 에어컨이 38%, 컴프레서가 17.8%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는 물론 포드, 닷지, 크라이슬러 등 해외 자동차 제조사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현대 NF소나타와 그랜저TG 등 신차에는 100% 한라공조 부품이 사용되는 등 전체 납품 물량중 20% 가량이 현대차그룹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내수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포드, GM 등 미국 '빅3'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수출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 올해는 신형 컴프레서 설비 가동률의 정상화와 원가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서는 한라공조가 컴프레서 부문에서 덴소나 멜파이와 같은 기술력을 갖출 정도로 세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도약

■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와 LCD 장비 제조업체로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5년까지는 전체 매출의 80% 가량이 LCD 장비에서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주력 제품으로 ALD(원자증착장치) 등장하면서 반도체 장비 매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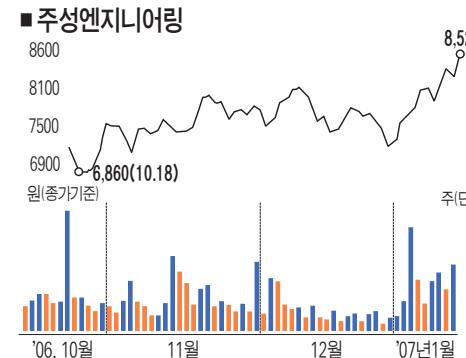
고부가가치인 ALD 장비의 매출 비중 증가와 제품의 제조원이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올해도 주 매출처인 하이닉스반도체의 차세대 공정 투자계획으로 내수 판매가 증가하고 대만과 일본 등 고객 다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회사 주주인 비스티온이 구조조정을 마친만큼 환경에 대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가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하이닉스내 절연막 장비의 100%를 점유하는 등 하이닉스로부터 제품 생산성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는 점이 향후 해외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하이닉스의 핵심 파트너가 있는 유럽과 대만 반도체 업체로의 양산 장비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1만원대에 최대 매출액

의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올해 영업이익이 100% 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뛰어난 반도체 증착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다변화와 제품 다양화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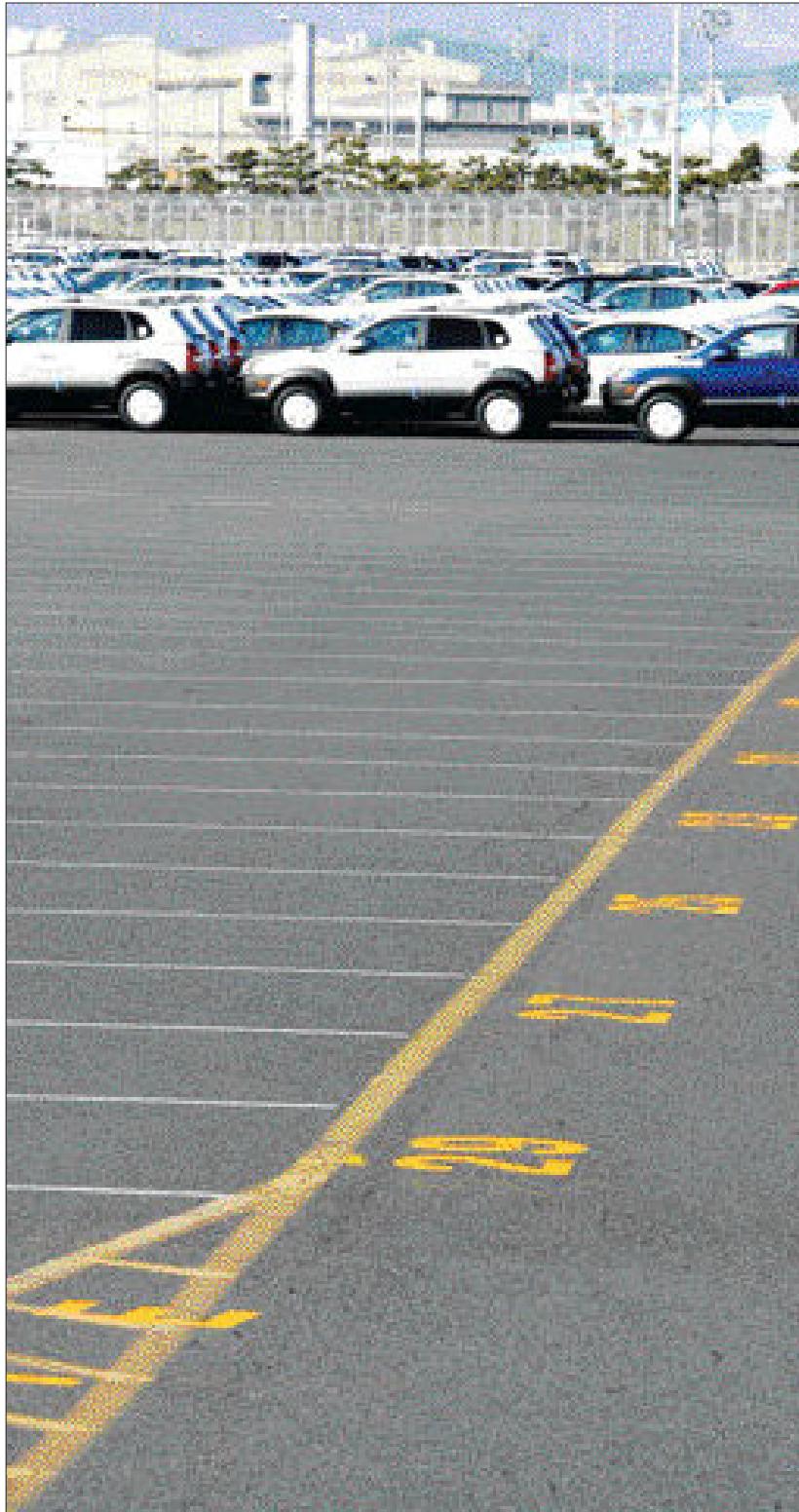
현대차 파업 장기화 우려

노사 성과금 입장 차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할 노사간 대화가 양측의 기본입장 차이 때문에 얼리지 못해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회사의 지난 해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에 반발해 임금과 특근을 거부해 온 노조는 15일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17일에는 주·야간조 각각 6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하는 등 이번 주부터 본격 파업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노사의 극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당장 대화가 시작되는 어려워 보여 노조는 15, 17일에 이어 18일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산 및 임금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증권 분쟁 크게 늘어

작년 583건...39% 증가

지난해 주식이나 투자상품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동안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583건으로 2005년의 419건에 비해 39.1% 늘어났다.

분쟁 유형별로는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한 분쟁이 125건으로 76.1%나 급증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분쟁 대상인 일임매매가 146건으로 41.7%, 임의매매는 97건으로 40.6% 늘어났다. 그 밖에 기타 분쟁 사례도 130건으로 62.5% 증가했다.

반면 주분집행과 관련된 분쟁은 58건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은 27건으로 32.5%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주식 관련 분쟁이 513건으로 전체의 88.0%를 차지했으며, 선물·옵션 관련 분쟁은 48건으로 8.2%, 기타 상품 관련 분쟁은 22건으로 3.8%에 그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임·임의매매로 인한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분쟁예방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증가폭은 둔화되는 양상이다"며 "반면 최근 증권사마다 신상품 출시가 크게 늘면서 그와 관련된 부당권유로 인한 분쟁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투자위험 고지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거대 은행들, 반성하라



반영률이 높은 항목은 창업 과정의 구체성과 성실성이다.

주택담보 가계대출로 재미를 봄은 은행들은 정부가 부동산을 잡는 데에 대출보내는 장벽을 높인 이후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대출업무를 중소

정상 광

<문화생활부 기자>

기업쪽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 만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사이 월말 이면 피가 마르는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답보가 아니라 성실과 성공구체성으로 중소기업에 꽉 차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의 전략전환을 기대한다. /camus@kwangju.co.kr

현대차 파업...한산한 수출 애장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수출전용 선적 부두의 애장이 텅 비어 있다. 수출용 자동차로 꽉 차 있어야 할 이 애장은 최근 노조의 잇단 임금과 특근 거부에 따른 생산 차질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④스마트정보	영업 관리 및 경리/회계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2-350-8500
⑤현대코리안	정규직 생산직 및 경리직 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7	062-956-6852
포털기연(주)	각 부문 신입 및 경력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7	061-798-3220
⑥모노디자인	경리/회계/비서/기장 등 경영지원관련 사원 모집	고졸/경력년	1200~1400	01/20	062-462-3433
삼성화재(주)	품질보증부 대리급 채용공고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01/20	062-951-8001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전자증 판매전시장] 남부지점 하반기 정규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653-0051
시흥금속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20	062-956-0225
㈜아프로	사무관리 및 홈페이지관리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512-8112
LG전자서비스	휴대폰/디지털 기전 수리과정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510-6190
이전아이텍(주)	Power Builder 개발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20	02-325-5020
㈜남원	해외영업원 모집-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1/26	062-225-9181
㈜대진정보기술	네트워크 엔지니어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6	062-266-8805
㈜대봉	전반적인 총무/총무/구매 업무 수행 사원모집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1/26	062-517-6470
㈜엔오리온	석유화학 기계설비/해외/국내 영업 사원모집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1/26	061-682-5501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215회)

(제21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수	당첨자 수
02 03 07 15 43 44	0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자	1,587,689,615	7
2 5개 숫자+보너스 수 숫자일자	57,884,518	32
3 5개 숫자 일자	1,484,219	1,248
4 4개 숫자 일자	56,218	65,898
5 3개 숫자 일자	5,000	1,062,967

팝콘복권

(제38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3조 322956
2	5억	3조 322955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56406
5	1만	각조 914
6	2천	각조 45
7	1천	각조 59

중견·내수기업 중심

연구개발 투자 확대

대기업과 수출주도기업을 대신해 올해는 중견기업과 내수 중심기업들이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14일 내놓은 '2007년 연구개발 투자전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평균 12.3% 늘어난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총업원 300~999명)들의 경우 지난해보다 22.7% 늘어난 1사당 평균 82억1천200만원의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산자부와 산업기술재단이 공동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실시된 것으로, 모두 1천38개 기업이 유효한 응답을 제시했다.

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경우 1개사당 평균 R&D 투자계획이 381억500만원이었으나 증가율은 7.6%에 그쳐 중견기업에 크게 뒤졌고 중소기업들의 R&D 투자계획도 작년에 비해 11.4% 늘어난 7억5천100만원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쇠고기 수입액
작년 20% 증가

국산 쇠고기의 높은 가격 등으로 수입산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쇠고기 수입액이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검역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7억5천894만달러어치, 17만9천405t의 수입 쇠고기가 검역을 통과했다. 이는 2005년의 6억3천117만달러, 14만2천601t에 비해 각각 20.2%, 25.8%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03년 11억2천687만달러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3년 말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과 캐나다산 수입을 금지하면서 2004년에는 절반 이하 수준인 4억7천606만달러까지 급감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6억3천1